**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  |  |  | | --- | --- | --- | |  |  |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 |  |  | | **[A]** | | |  |  | |  |  |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낯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낯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젖 먹자고 웁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님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  |  |  | | --- | --- | --- | |  |  | “낭자께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 |  |  | | **[B]** | | |  |  | |  |  |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뢰되,  “ⓒ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날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 도문 :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